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

세계물의 날에 '환경부장관 단체 표창' 수상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회장 정명운)가 지난 3월 22일 '제 14회 세계물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는 1980년 12월 2일에 창립한 전북지역 환경기술인들의 단체로서 환경보전캠페인, 환경정책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영세업체 환경기술지원, 우수업체 벤치마킹, 환경체험장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물 관리 및 보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매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정화활동 등의 환경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환경의식 함양 및 환경보전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환경관련법 설명회, 환경 실무교육 및 신기술 발표회 등을 통하여 환경기술인들의 기술력 향상과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지원은 20여명의 인원으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매년 20여개 업체에 대해 무료로 환경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기술지원은 환경기술이 부족하여 환경관리가 미진한 영세업체의 신청을 받아 환경 분야 현장조사와 문제점

파악, 대책방안 제시,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지도, 개선 후 운영상태 지도, 환경관련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제반사항 지원, 환경관리 직무 교육 실시 등을 비롯하여 각종 환경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년간의 환경기술 지원이 종료되면 환경기술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타사업장에도 전파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환경관리 모범업체 산업시찰 활동을 통해서 환경관리가 우수한 모범업체 산업시찰단을 구성하여 모범이 되는 업체를 방문 벤치마킹하여 환경관리의 향상 및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 매년 갯벌 체험 등 환경 체험장에 캠프를 설치 운영하여 일반인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마음 가족 캠프활동도 하고 있다. 이날 이 단체는 세계물의 날을 맞이하여 전라북도 및 전주지방환경청이 후원하고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공동 주최하는 '지속가능 물의 이용'을 주제로 세미나도 가졌다.

전북협의회 정명운 회장은 "지역 환경개선과 산업현장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협의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